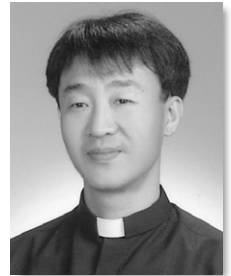


주일의말씀

신자(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김용민 안드레아 신부
고령성당 주임



크리스찬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부터 가려 내져서 하느님 나라에 살도록 불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며 그 삶의 결과도 세상 사람들과는 현저히 다를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있어도 쉽게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표지가 바로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 주며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빼앗으려는 이에게 먼저 내어주고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먼저 남에게 해주며, 되받을 것을 바라지 않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술주정뱅이에 난봉꾼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남편의 행패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함께 삽니다. 그러면서도 남편을 보면 미운 생각 보다는 불쌍한 생각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저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구원 받지 못할 텐데...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며 한숨을 쉽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한 마디

합디다. “내 속 다 썩었지요. 속 꺼내 보면 다 타서 시커멓 겹니다.” 하며 한숨을 푹 쉽니다. 정말입니다. 속 다 썩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한숨을 내뿔어야 할 지 모를 노릇입니다.

세상에서 살 것만을 생각한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에게 잘 해주는 사람들과만 사귀고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생각하기에 속이 다 썩어 나자빠지면서도 그렇게 삽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서 속 다 썩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려고 용쓰면서 살아가는 당신 자녀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엽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겠습니까? 마지못해서 쩡그리면서 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혈로 씻겨 이 세상에서 따로 뽑아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의말씀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5,44 참조)

제1독서 : 레위19,1-2,17-18 제2독서 : 1코린3,16-23 복음 : 마태5,38-48.

17. 자애로운 마리아님, 우리 어머니 - ‘성모의 밤’의 기원

문화홍보실

다른 곳에서 오신 손님들이 대구대교구 신자들은 성모 신심이 깊다고 감탄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만,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루르드의 성모님께서 우리 교구의 주보이실 뿐 아니라 교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껏 성모님께서 이 교구를 위해 전구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역력하기 때문에, 성모님을 마음 깊이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드리는 사랑이 떠나 장소를 가리지는 않지만, 그 사랑이 가장 두드러지는 곳은 성모당이요,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시기는 성모성월, 그 중에서도 성모의 밤 행사 때입니다.

성모당은 이제 대구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들르는 것을 보면 제법 먼 데까지 이름이 난 모양입니다. 성모당과 함께 이곳에서 열리는 성모의 밤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성모의 밤 행사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1973년부터라고 합니다. 이 해 5월에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돌아가면서 성모당에 순례하고 성모의 밤 행사를 가졌는데, 그 후로 이것이 관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모의 밤은 그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9년 성모성월에 청소년들이 성모당에서 성모찬가를 부르며 헌시와 헌화를 했

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6.25전쟁으로 피난민들이 대구에 몰려들게 되자 계산성당, 해성학교, 효성학교, 신학교가 피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제공되었는데, 인민군이 대구 근교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에는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무수한 이들이 성모당에 몰려와 기도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지난 후에도, 오후 3시가 되면 성모당을 찾아 기도하는 이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사제가 인도하는 예절도 아니었지만, 평화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기셨습니다.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19,27)하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고 그분의 지체가 되니,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전 카나에서 구원의 때를 앞당기셨듯이, 전쟁의 와중에서 불안에 떠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셨듯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께서 당신 자식들을 위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사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당신을 저희 집에, 저희 마음에 늘 모시고 살도록 전구해 주십시오.”

내가 미워하지 않는 이유

박성규 엘리지오





오늘의 미사

연중 제7주일

입당성가

28 불의가 세상을 덮쳐도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봉헌성가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송

주님, 당신의 기적들을 낱알이 전 하오리다. 지극히 높으신 분,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 찬미하나이다.

파견성가

31 이 크신 모든 은혜

영성의 향기

:: 하느님의 자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지만, 죄를 지음

으로써 부자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과 화해하고 다시 하느님 집안의 식구가 되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깨끗해져서 다시 태어나는 이 영적인 탄생을 이루어주는 것이 성세성사입니다. 이 영적인 혈연관계는 이 지상의 가족 관계보다 더 깊고 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모르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집의 식구가 되면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변화하여 모든 고통과 슬픔을 벗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오로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찍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실 이 은혜를 미리 내다보고 다윗 왕은 기쁨에 차서 노래했습니다.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하느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 교구 사목국 권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나는 어디서 왔어요?



다섯 살 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어디서 왔어요? 동생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엄마는요?” 당황한 엄마는 황새가 물어온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같은 질문을 했고, 할머니는 “삼신할머니가 데려오셨단다.” 하고 가르쳐주었습니다. 아이는 놀이터에 나가서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실 평범하게 태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모습 따라 지으시고 세상에 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세상에 나서 살아야 하는 까닭이 있는 사람입니다.

- 율겨은 글입니다 -

교구 예비신학생 등록제 실시

신청마감: 3.20(일)
문의: 본당 사무실
※ 등록·모임 참석자만 하계 성소피정 가능

행사 / 모임

교구 100주년 전례꽃꽂이 작품 전시 신청

기간: 2.21(월)~3.26(토)
문의: (010)5501-4042

교구설정 100주년기념 생명사랑나눔대축제

일시: 5.7(토), 8(일) 양일간
장소: 교구청 내 운동장 및 대강당
내용: 바자회, 사회복지박람회, 다문화축제
*바자회에 참여할 개인, 본당, 단체 모집
문의: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253-9991

가톨릭미용인회 <빛> 모임

일시: 2.28(월) 20:30, 요안나미용학원
문의: (018)560-3086 / (010)8397-9783

성소 / 파정

예수성심전교수녀회 젊은이파정

일시: 2.25(금)16:00~27(일)15:00
부산본원(2.23(수)까지 선착순)
주제: 보물을 찾아, (010)9330-3104
대상: 35세미만의 미혼여성(회비4만원)

한국 성모의자애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2.27(일)14:00~, 계산서원
문의: (010)3113-6219, <http://samm.or.kr>
※ 상담 언제든지 가능

말씀의집 성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일시: 3.2(수)~11(금), 3.16(수)~25(금)
5.4(수)~13(금), 6.23(목)~7.2(토)
문의: (031)254-8950

모집 / 교육

대구가톨릭 음악원 23기 모집

문의: 255-4847

교구청 및 성모당 안내봉사자 모집

모집기간: 2.28(월)~3.10(목)까지
교육기간: 3.14(월)~18(금) 19:30부터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문의: 성모당 사무실, 250-3055

환경위원회 명상체조반 개강 안내

개강: 3.1(화)
일시: 화, 금 14:00~16:00
수강료: 2개월 6만원
문의: 253-3655 / (010)5250-3523

장례지도사 자격시험(7월) 취업교육생 모집

개강: 3.2(수), 매월 셋째주 토, 일
본당 선종봉사자 1박2일 교육

내용: 취업전문반, 자격취득반, 남녀궁중염, 연화염, 종교염, 고깔염, 장례도우미반
문의: 대가대평교원, 526-3413~5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안내

오카리나: 3.7(월)13:00
하모니카: 3.2(수)15:00
제대꽃꽂이: 3.11(금)10:30
미학과 인생: 3.4(금)10:00
문의 및 신청: 254-6115

SOS자립생활관 생활자 모집

대상: 기초생활수급권청소년 만18~25세
내용: 주거제공, 취업알선 및 진로지도
문의: 검사동SOS자립생활관, 982-9936
삼덕동SOS자립생활관, 427-9659

선교훈련 시그마 코스 16기

일시: 3.11(금)~13(일) / 회비: 6만원
장소: 충북 청원 엠마우스피정의집
문의: 미래사목연구소, (031)985-2835

안내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대상: 2011년 대상자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1차, 암검진 (암검진은 꼭 예약)
건강검진은 암 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미사	일시	장소	미사	일시	장소
4대리구 경주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2월 21일(월) 오전11시	성동성당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2월 22일(화) 오후2시	성모당
포항지역 군중후원회미사	2월 21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바노의성모님 미사	2월 24일(목) 오후2시	삼덕성당
한티성지후원회 월례미사	2월 21일(월) 오전11시	한티순교성지	공소후원회 미사	2월 26일(토) 오전11시	남산성당

2484 익스프레스

칠곡 313-2484
서구 566-2484
달서구 637-2484
수성구 761-2484
한여기(바오로) 011-514-3855

관객선연하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 객동 석
코수술 · 예방접종 · 영유아검진전문병원
서부정류장, 옛 달성군청 옆 삼광빌딩 4층
☎ 638-7582(치료빨리)
HOME PAGE : www.ksnose.com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253-7476
방 프란치스코 (교우님 우대 할인)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대장 · 항문(치질, 변비) 전문클리닉

원장 의학박사 :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 · 변비, 소아변비 · 변실금, 위 · 대장내시경
여성진료 입원실 · 지하 무료주차장 완비
959-7175(치질치료), www.hangmun.com
신대우아파트 복원오거리
친신교 앞세육관

예금과 대출은

- 신속하고 간편한
- 아파트담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
- 높은 수익과 안전한 예금

유니온 저축은행

TEL : 256-1122
대표이사 박판희(안토니오)

악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 · 요통 · 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30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신랑 각시 결혼 문화원

초혼 · 재혼 · 만혼
초혼 · 고졸이하 미혼 여성 등록비 무료
재혼 · 자녀 무명 이상인 분 성서비 없음
www.sk1004.co.kr
이원교(요안나)
☎ 471-0707, 016-817-8888

치질 · 치루 · 항문병 수술

♣ 선일외과의원 ♣
원장, 전문의 : 배선익(사도요한)
지하철 2호선 범어역 3번출구, 수성못방향 → 300m
TEL : 745-6633~4